

물같이 공천 경쟁 돌입... 떨고 있는 현역들

새누리, 여론조사·경쟁력 평가 하위 25% 배제

민주통합, 도덕성 등 잣대 9일부터 후보자 공모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모두 '혁신 공천'으로 총선을 돌파한다는 방침 아래, 역대 최고 수준의 '물같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현역 하위 25% 공천 원천배제' 원칙을 밝혔고,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에 버금가는 물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새누리당 공추위(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는 6일부터 닷새간 공천신청을 받고 16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지도부는 공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196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벌였으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마쳤다.

각 선거구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를 두고 당 지도부는 정세를 알아보기 위한 일차적인 여론조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사실상 현역 의원 교체 지수 산정

을 위한 방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결과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위에 공식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추후 실시할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마지막 등급 25%를 공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6일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를 공식 발족한 뒤 9일부터 사흘간 후보자를 공모하고 13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심위는 사실상 1차 물감이에 해당하는 경선 후보군 2~3배수 압축 작업을 한 뒤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 공심위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외에 정제성과 도덕성, 당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등을 꼼꼼히 따진다는 계획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난 18대 총선 때와 달리 후보의 정제성과 개혁성이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인적쇄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외부 공심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의 정강 및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을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철규 공심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 위원들이 당내외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혁신 공천'

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천이 과거 18대 국회 공천처럼 일방적인 인적쇄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박재승 공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데다 민주통합당 출신의 공심위원들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립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제성과 개혁성 등이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부 공심위원들이 이를 토대로 인적쇄신에 나서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19개 총선 공천에서도 상당한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라며 "하지만 과거 18대 총선 공천에서처럼 커트라인을 중심으로 한 인적 쇄신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5일 여의도 한식당에서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 등 외부 공천심사위원들과 첫 상견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공천 시동

민주통합 공심위 인선 갈등 봉합되나

문성근 최고, 일단 수용... "영·호남 흠뻑" 불씨는 여전히

민주통합당의 '공심위 구성'과 관련, 불만을 표시했던 문성근 최고위원이 하루만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문 최고위원 뿐 아니라 영·호남지역의 불만이 여전히 상당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 당직 인선과 공천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공천심사 과정이 공정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일이다. 앞으로 공정한 경선을 위한 시도당의 인적 구성, 비례대표 공심위 및 총선거구단 구성 등에서 훼손된 통합정신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심위 구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대신 향후에는 시민통합당 측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날 자신이 추천한 이준동

나우필을 대표와 소문상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공심위원에서 제외되자 최고위원 회의를 불참하고 공심위 재구성을 요구한 것보다는 한결 누그러진 것이다.

문 최고위원이 속한 '혁신과통합'도 성명을 내고 "혁신과통합은 향후 통합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힘을 합쳐 총선승리와 정권교체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있다.

문 최고위원의 발언은 향후 당직인선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압력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다른 계파의 불만도 상당하는 것.

당 지도부의 공심위 구성과 관련, 호남 출신이자 불출마 선언을 한 장세환 의원은 "비(非) 친노그룹과 영·호남에 대한 배려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특정계파와 특정지역만을 위한 불균형 인사"라며 "당직 독식에 이어 공천도 독식하겠다는 이기심의 발로이자 물먹힌 행태"라고 정면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출신 공심위원 7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 출신이 4명(박기춘·백원우·전병헌·조정식)이고, 충북 1명(노영민), 호남 1명(유운근), 비례대표 1명(최영희)이다.

이에 따라 일단 비례후보 공심위와 총선거구단 구성 등에서 이 같은 불만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한명숙 대표가 여러 통로로 대화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주변 인사들의 특정계파에 치우친 목소리만 듣고서 향후에도 당을 운영하다보면 더욱 심한 갈등과 분열이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진보 "총선 승리를 위하여" 야권연대 논의 본격 시작할 듯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조만간 4·11 총선 야권연대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과정에 들어감에 따라 야권연대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4일까지 180개 지역구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를 확정해 야권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16일 광역별 당 지지율을 토대로 양당 간 공천권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고 13일부터 후보자 심사를 시작해 20일에는 지역구별로 당내 경선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야권연대 협상 결과 통합진보당에 내주기로 결정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공천을 하지 말아

야 내부 진통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연대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수도권에서 상당수의 지역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산·경남·인천·울산 등의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야권연대 협상이 진척되거나 시작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당 간의 협상이 틀어지는 경우 이들 지역에서도 야권연대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한 석도 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절실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이 강력히 반발해온 석파를 제외하고 야권연대 협상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 70년대생 예비후보들

"청년후보 10% 공천 보장해달라"

민주통합당 70년대생 당원도 입과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 예비 후보자들이 '청년후보 10% 공천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이강 민주당 예비후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올해 총선·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70년대생 X세대들은 486세대 선배들이 해왔던 핵심적 역할을 이어받아 잘 감당해 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지형의 변화는 SNS로 무장된 청년 세대의 조직적인 정치 참여 뒷받침 됐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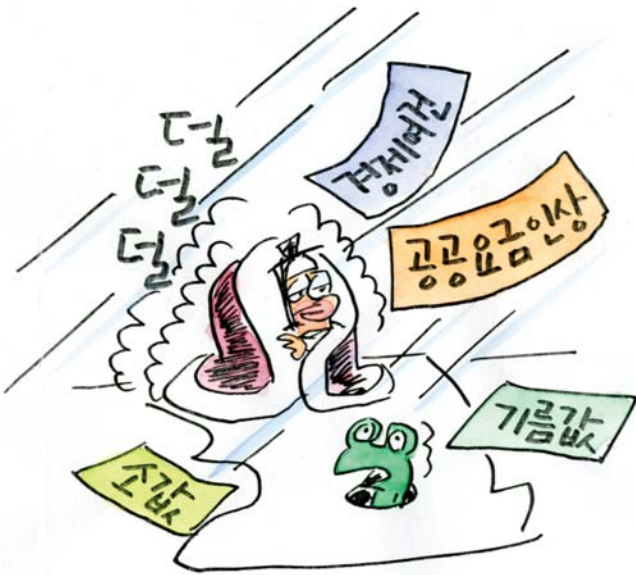
그는 특히 "여성후보와 마찬가지로 7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천 비율 할당과 가산점이 주어져야 진정한 공천혁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청년 예비후보들에게 당내 경선에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략공천 선거구의 50%를 배정하면 70년대 이후 출생한 후보들이 전체 지역구 공천자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빛의 만평

- 김중두



봄이 오긴 울까 싶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HANIL EXPRESS

제주↔완도 한일카훼리 취항 33주년 기념 이벤트

렛츠고

3.3.3!

www.hanilexpress.co.kr



Event 1. 3.3.3. Early bird 할인
3월 탑승 블루나래호, 33% 할인!
▶ 기 간 : 02년 1월 ~ 02년 29일
▶ 대 상 : 3월 탑승 블루나래호 예매 고객
▶ 내 용 : 블루나래호 일반석 33% 할인 (타미널 이용료 별도)

Event 2. 다자녀 가정을 응원합니다!
3자녀 이상 가족고객, 33% 할인!
▶ 기 간 : 2012년 중
▶ 대 상 : 3자녀 이상 동반 가족 고객
▶ 내 용 : 블루나래호 일반석 33% 할인 (타미널/주석 특송기간 제외, 타미널 이용료 별도)

이벤트 상세 내용은 한일고속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전화 1688-2100